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월 8일 (제88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

작년 말 수요일예배 때 나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라’는 설교를 했다. 이 설교를 듣고 이봉훈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다. 그 내용이 감동적이라 실는다.

“목사님, 어제 설교를 듣고 너무 기뻐서 몇 자 올립니다. 설교제목이 너무 멋져요. 저는 1967년 수도여고 졸업 후, 그해 대학에 떨어지고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국에 계신 엄마의 소원이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소원도 풀어드리고, 한편으로는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졸업한 다음해에 처음 생긴 예비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대학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오빠와 남동생이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에 입학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림이 넉넉한 외삼촌께 입학금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애,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마라. 내가 돈 있으면 국회의원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입학금이 7만원 정도였어요. 하는 수 없이 고교선배 언니에게 4만원 빌리고, 동네 돈놀이(일수)하는 아줌마에게 3만원 빌려서 입학했는데 다행히 1학기 기말고사에서 과수석을 해서 동창회 장학금을 받아 2학기 등록하고, 2학기 말에도 과수석이어서 5.16 장학금으로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고, 졸업 후 순위고사 합격하여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라’는 설교 너무 감사합니다. How wonderful!

1990년 1월 3일 등록 후 지금까지 목사님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올해엔 더욱 건강하세요, 설교 후 힘들어하시는 목사님 모습에 가슴이 시려옵니다. 목사님, 올핸 정말 30대의 기력을 회복하시길 늘 기도합니다.”

그렇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없다. 오직 올라가려는 도전의식이 없을 뿐이다.

가장 큰 애국은 무엇일까?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2017년 새해 벽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거행된 8차 평화통일 기도성회에서 찾았다.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국가의 안녕과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성도들이 몰려들어 핸드볼경기장 안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정각 9시,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십자가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를 시작으로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시작되었다.

강사로 서신 이초석 목사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천여번의 외침이 있었고,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며, 동족끼리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라를 두 동강이 나게 했고, 지금까지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

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이 나라는 머지않은 장래에 꿈꾸듯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폐쇄된 북한사회가 문을 열 수 있도록 대화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교류가 먼저 꾸준히 이루어졌기에 이질감이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래야 합니다. 아무리 차가운 물도 계속 뜨거운 물을 주입하면 언젠가 따뜻해집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푸신다(마18:18)는 말씀은 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베풀어야 합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일을 삼가고 감동을 주면 언젠가 그들도 녹는 날이 옵니다. 물은 끓기 전이 제일 시끄럽습니



제8차 평화통일 기도성회(2017.1.3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통해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가르치셨다.

“나는 전쟁이 싫습니다. 공산주의는 더 더욱 싫습니다. 전쟁에는 일말의 희망도 없고 오직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목사

와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고, 교회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협적인 공산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선지자

나눔은 우리나라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평화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나라를 회개해야 하고, 6,70년대 일었던 부흥의 바람이 다시 이 나라에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

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평화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평화통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분을 의지하고, 그 분께 기도합시다.”

손마다 태극기를 든 성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통일 주옵소서!” 라고 목사님을 따라 외쳤다. 이 소리가 하늘보좌에 닿았을 것을 우리는 믿는다. 곧 김일성광장이 평화의 광장이 되어 그곳에서 북한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꿈꾼다. 할렐루야!

신묘수

jesus7857@gmail.com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다



애국가 제창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느1:1~11)



느헤미야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단체든, 어느 기업이든, 어느 교회든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믿음과 지혜를 배워봅시다. 성경 느헤미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450년 전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 2세로서 당시 대제국인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술 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어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11~12월)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어떻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벽은 훼파되었고, 성물들은 소화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전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귀환이 있었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귀환이 있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은 형편무인지경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곧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술 관원이라 하면 왕이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고대의 군주들은 독살이 두려워 왕과 그 가족이 먹는 음식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술 관원이나 떡 관원이 독을 넣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에게 달려가 도와 달라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느1:4).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넉 달 동안 계속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은 문은 열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지금의 지경이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느1:6~7)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께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삼림감독 아삽에게 영문과 성곽 및 재목을 주라 명하고 군대장관과 마병까지 팔려 보내주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조서까지 내려주고 호위병까지 보내줘서 신변을 보호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만물과 만민을 진동시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전3:21).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럴 때 어찌 합니까? 혹 권력자나 재력가를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몸이 좀 아프면
기도하기 전
에 의사
를 만
져

찾
아
가
지
않
습
니
까?
병
원
가
는
게
나
쁜
다

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
다.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성사시키는 힘이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이요? 홍해 같은 문제나 여리고 같은 문제요? 하나님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며(롬4:17),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눅18:27).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상점에 가면 주인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의 인물이나 학벌이나 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만 보듯이 하나님은 문제가 무엇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홍해를 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없는 것은 이 시대에 그런 기적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연고인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라합 등,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 앞에 모두 공통적으로 붙은 말은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크게

역사하신 것은 이들의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여
러
분
이
예
측

할
수
없는 기
적의 사건
을 맛보아야 기
도에 전념하게 됩니
다. 제가 32년 기도의 일생을

산 것은 다 간증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돈을 많이 내면 값진 것을 살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히11:6).

그 다음은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왕에게 허락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11절에 왕이 돕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습니다만,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곽을 재건한다는 말을 하기란 그리 쉬운 일

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했을 당시, 누군가 예루살렘 성벽재건에 대해 고소문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재건은 자칫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으로 번져 반란으로 커질 우려가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분노하며 성벽재건을 중단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재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라

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공공연한 장소가 아닌 왕과 왕후만 있는 사석에서 그는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무슨 일이나?" 하고 먼저 물었고, 그에 조심스레 일을 고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것,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꾀계를 공석에 알리지 않고 사석에서 아하수어로 왕에게 고합니다. 공석에서 그랬더라면 에스더는 많은 대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쫓겨나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라고(잠4:7) 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는 것이고,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낚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평화통일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반드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느헤미야, 그는 52일 만에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만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도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땅을 깊게 파면 물이 나오듯 깊은 기도는 인생의 샘이 터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 람에게 인정받아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좁은 문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10:11)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배웠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면, 구약은 그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모델을 들어 설명한 책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그 시대 그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일과 그 결과를 보고 그들을 거울삼아 오늘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약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40년의 여정 끝에 여호수아, 갈렙, 단 2명만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 나머지 입성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후손들이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첫째, 우상을 만들었다. 둘째, 간음하다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다. 셋째, 하나님을 열 번이나 시험하다 뱀에게 물려죽었다. 넷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멸망하고 말았다(고전10장).

우리도 세상(애굽)을 쫓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왔다. 교회는 광야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

니요, 광야라는 교회생활을 잘 마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조차 모른 채 그냥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사람들, 세상쾌락에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시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확률 상으로 보아도 모퉁이 송연할 일이다. 200만분의 2, 곧 0.000001%!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강조하신 이유를 위의 수치를 보면 격하게 공감하리라 믿는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단번의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뿐더러 더구나 천국입성은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담대히 회개하고, 회개한 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하루라도 우리 입술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잘 가자. 날마다 죄악과 싸워 이기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다.

Henry Han

그릿(Grit)이 있는가?

요즘 성공의 정의가 바뀌어가는 추세다. 예전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출세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했었다면, 요즘엔 ‘끝까지 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펙이나 환경보다 ‘그릿’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뭔가를 끝까지 해내는 ‘투지’, ‘인내’, ‘열정적 끈기’를 ‘그릿(grit)’이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그릿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릿’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삶의 역경과 누명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요셉, 포로 된 입장에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에게도,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서도, 다윗에게서도, 사도바울에게도 구령의 ‘그릿’이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에게도 투지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열정을 이뤄내는 끈기, 즉 그릿이 있었다.

위인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4가지 질문이 있다고 한다. 첫째, 장기 목표를 향한 노력이 있는가? 둘째,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는가? 셋째, 한번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결단력이 있는가? 넷째, 큰 장애물 앞에서도 목표를 이뤄가는 집중력이 있는가? 요약하자면,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 즉 그릿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에 들어선 위인이 된다는 것이다.

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주님은 열정과 끈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전들은 모두 처음부터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우고 변화시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믿음의 선전들에게 그릿이 있었다. 꾸준히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가는 열정 말이다. 2017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 기회는 성공을 갈망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릿이 있는가?’ 살피면서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찾아올 것이다. 가끔 인생의 성장통이 찾아온다 해도 오뎅이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 본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조금만 더 노력하자

진눈개비가 내리는 어느 겨울, 한라산 등반을 시작해 장장 4시간이 걸려서 정상 백록담에 올랐다. 눈이 오는 흐린 날씨라 백록담은 보이지 않았으나 아이젠 하나만 착용하고 정상에 올랐다는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찼다.

정상에 오른 과정은 이렇다. 한 시간 정도 오르다 지쳤을 때 인도하는 집사의 “목사님!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라는 말에 다시금 힘을 내어 올랐다. 그러길 또 한 시간쯤 후 지친 몸으로 걸음이 늦어지니 그 집사는 또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 결국 ‘조금만 더...’를 4번 한 후에 정상에 올랐다.

힘들고 지쳐서 산행을 멈추고자 할 때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정상입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며, 정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지 모른다. 자신의 한계에 스스로 머무르면 평생 성공이라는 희열은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학교 다닐

때 커트라인이 70점인 경우 69점을 받아 불합격한 사람과 71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 ‘조금만 더’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총회장 목사님은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당신의 지금 태도보다 조금만 더 근면 하라.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행동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감사해보자. 조금만 더 믿고, 조금만 더 전도하고, 조금만 더 충성하고,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정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성공적인 자세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난 주 회사 내 다른 팀 사람과 점심을 먹다가 나를 격동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인즉슨 자신의 교회 친구가 모든 삶을 뒤로하고 티베트 위 중국 내 무슬림이 많은 한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평신도인 그 친구는 선교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를 한 후에 그 지방 학교에 들어가 캠퍼스 전도를 통해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이고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나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선교를 하러 간다는 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올 여름 팀 내 친한 동료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남편과 함께 해외로 제자훈련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일은 결혼 전부터 남편과 계획된 것이었고, 남편도 회사를 잠시 정리하고 부부가 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이 두 사건을 마주하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당장의 삶을 위해 북한이나, 중국, 중동지역 등 세계 곳곳에

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불법인 곳에 왜 가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총회장 목사님의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일찍이 목사님은 2000년 세계 선교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커피 한잔 값인 오디오와 비디오테이프를 선교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최근 한 신문기사에서 세계화와 도시화, IT의 급속한 발달로 전 세계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됐다는 내용을 보았다. 전 세계에 보급된 핸드폰과 태블릿 PC와 모바일 기기는 70억대를 넘어섰고, 언어소통이 안되어도 모바일 영화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사를 접하며 나의 사명은 미디어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 지상명령에 대상이나 조건을 걸지 않았다. 청년이건 노인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목회자건 평신도건 간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전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하나님께 인정받길 원하면 죄악과 이혼하라



송구영신예배 (2017. 1. 1 KBS88체육관)

2016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송구영신(送舊迎新)예배가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진행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면서, 혹은 타종을 하면서 새해를 맞고 복을 빌지만, 우리는 새해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모였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으로 시작된 송구영신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하나님께 인정받길 원하면 죄악과 이혼하라’는 말씀으로 새해 첫 메시지를 전하셨다.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죄악과 이혼하면 됩니다. 이별이 아니라 이혼해야 합니다. 이별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오른손이 실족케 하거든 오른손

을 찍어버리고, 눈이 실족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죄악과 이별이 아니라 이혼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정(認定)이란 곧 신뢰와도 뜻을 같이 하는데, 신뢰(信賴)란 한문을 풀이해보면 사람 인(人)변에 말씀 언(言)이 합쳐서 신(信)이고, 뉘(賴)는 묶을 속(束)변에 질 부(負)가 합쳐서 된 것입니다. 이 뜻을 보자면 ‘내 말을 사람의 등에 실어 보낼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 신뢰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을 새기자니 인천교회 부지를 매입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 때 염상섭 장로에게 잔금을 주며 가서 일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 때 염 장로가 무릎을 꿇으며 ‘목사님, 이렇게 큰돈을 제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

넬 믿네. 자넬 인정한다는 걸세.’ 라고 제가 답해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 회사에서도, 더욱이 하나님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맡겨도 걱정되지 않는 사람, 의심되지 않는 사람, 안심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죄와 괴리를 이기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이기에 죄와 무관할 수 없지만, 그것과 무단히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신뢰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허다한 하나님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죄와 싸워 승리한 자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어찌 됩니까? 사자굴에 떨어져도 살아나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죽은 지 나흘이 지나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신용불량자라 하면 부채를 못 갚은 자만을 생각하는데,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잘못된 자도 신용불량자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사는 자야말로 회생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른 깨닫고 죄악과 이혼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신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멀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緣)을 잘 맺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 악연이 있습니다. 이 악연은 참 질겨서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애당초 연을 맺질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맺었다면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끊어내야 합니다. 영킨 실타래는 잘라내는 것이 상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릴라를 끊지 못한 삼손 꼴 나고, 이세벨을 끊지 못한 아합 꼴 납니다. 다윗처럼 사울의 연을 끊을 때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고후6:14~16).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 그 분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전권을 위임받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올해 첫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비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면 된다.

2017년, 죄악과 이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Good News

두메산골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머슴과 불신자인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하였으나 주인은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만약에 네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해준다면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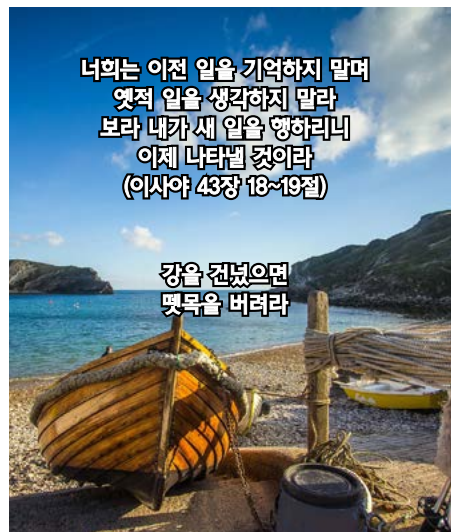
머슴은 주인어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한 가지 생

각을 해냈습니다. 한밤중에 마당에 나가 손으로 호랑이 발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며 호랑이가 다녀갔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머슴은 능청스럽게 “세상에 호랑이가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며 호랑이를 자기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발대발하며 “이놈아, 이렇게 선명한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느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머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도

호랑이가 다녀갔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하십니까?” 주인이 겸연쩍어 하며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1:20).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8~19절)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라

:: 나도 건강할수 있다 ::

식약동원(食藥同源) - 매실편

현대인의 몸은 산성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이전에 비해 다양한 질병이 생기고 있다. 매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유가 매실이 강알칼리성 식품이기에 먹기도 좋고, 소화에도 좋아서 매실 엑기스나 매실차가 인기가 있는 것 같다.

한의학에서는 매실이 폐, 위, 대장으로 가서 기침을 멈추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오래된 설사를 멈추고, 위장염에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로 원산지는 중국이며, 3,000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초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매실은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워 봄

을 가장 먼저 알려줌으로써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았고, 늙은 몸에서 정력이 되살아나는 회춘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장기적으로 매실을 복용하게 되면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하며, 피로회복, 간 기능 회복, 몸속 해독작용의 효과에도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소화력이 약하거나 소화 장애 및 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 매실 엑기스를 만들어서 복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매실 엑기스는 깨끗이 씻은 매실 살을 믹서에 갈아서 약한 불에 걸쭉해질 때까지 조리면 완

성이 된다.

일반적으로 술을 금하는 게 건강에 좋으나, 건강주로 매실을 복용할 때는 청매 60g에 소주 1병, 흑설탕 150~300g정도를 기호에 따라 붓고 밀봉하여 차고 어두운 곳에 3개월 정도 두었다가 공복에 복용하면 좋다. 이 매실주는 마셔도 잘 취하지 않고 숙취 등의 뒤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매실의 피크린산이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매실 장아찌는 짭짤하고 신맛이 있어 밥반찬으로 입맛을 돋우어 주고, 소화, 흡수를 도우며, 아이들의 식욕증진이나, 여성들의 피부미용에도 좋다.

마지막 주의사항으로는 매실은 조금 덜 익은 상태인 청매를 사용하거나, 약재상에서 오매를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다만 날로 사용하지 않고 불에 가열하거나 장아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실도 과하지 않게 복용하여야 하는데, 매실을 복용하고 소화도 잘되고 피로도 회복된다면, 매일 꾸준히 5~10g 정도를 복용하면 되며, 만일 위산이 과다하거나 병이 있을 시에는 오래 먹지 말아야 한다.

새콤달콤한 매실을 통하여 올 한해 잘 먹고 소화 흡수가 잘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